

이른 추석탓 ... 뚝 뚝 떨어지는 과일값

사과 20%·배 13% 하락 감·포도도 작황좋아 가격↓ 유통업체, 농가돕기 행사

이른 추석 탓에 과일 값 폭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과일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8년 만에 찾아온 가장 이른 추석으로 수요와 공급 시점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17일 광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후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사과와 배 등 과일류의 매출이 지난날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성수기에 2.5kg

박스 기준으로 2만원에 판매되던 사과는 현재 9900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배는 개당 3300원에 판매했으나 현재는 24% 하락한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을 햇과일인 단감은 8월 적절한 강수량으로 생육 상황이 호조를 보여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가량 증가했으나 추석 이후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석 성수기에는 개당 2900원에 판매됐으나 지금은 1000원으로 65%나 떨어졌다. 9월에 본격 출하되는 포도도 산지 작황이 좋아 전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에서 지난 15일 집계한 광주지역 과일 가격도 도매가 기준으로 사과(홍로 15

kg)는 6만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0% 하락했고, 배(원황 15kg)도 2만3800원으로 12.5% 하락했다.

과일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도매시장 상인들 역시 울상이다. 광주 북구 각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정모씨는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속상하다”며 “남아있는 과일들도 가격 하락 없이 제값에 팔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옆 가게 강모씨도 “추석이 지나자마자 이번 주부터 과일 찾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예년 같지 않은 가격에 잘 익은 과일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고 거들었다.

유통업체는 당도가 높은 품질 좋은 제철 과일이 싼 값에 공급되면 다시 소비량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으며 산지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8일부터 일주일간 과일농가를 돕기 위해 흠집있는 과일을 시세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이마트도 외관이 좋지 않아 명절 선물용이나 제수용 세트에 들어가지 못한 배를 할인판매한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9월에 출하되는 사과와 배는 크기도 크고 당도도 좋지만 올해는 추석 이후 소비가 줄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수농가의 시름을 덜고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좋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특판행사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2.61 (+19.69)	금리 2.37%
▲ 코스닥 574.98 (+2.62)	환율 1034.90원(-1.80)

광주테크노파크 해외 비즈니스센터 가시적 효과

지역 중기 수출협약 20건

광주테크노파크 해외 비즈니스센터의 지역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프로그램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해외 비즈니스센터의 지역 중소기업 수출협약 프로그램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부터 2년간 해외 비즈니스센터의 지역 중소기업 수출협약 프로그램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부터 2년간 해외 비즈니스센터의 지역 중소기업 수출협약 프로그램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역시 전 세계 센터에서 활발하게 현지바이어를 발굴, 총 20건의 수출 MOU가 체결될 예정으로, 광통신제품과 LED, 게임, 금형, 정보가전 등 지역 주요산업별로 수출MOU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비즈니스센터는 제품의 성능을 뛰어넘지만 자체적인 해외영업 및 해외 마케팅 능력 및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설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출신 및 현지 수출업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지역 기업의 해외수출 수요가 높은 37개 국가에 44개 센터가 운영중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요우커’ 잡고 지역민과 상생하고

(중국 관광객)

광주 롯데백화점, 개점 16주년

매장 개편·해외 브랜드 유치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 잡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일 개점 16주년을 기념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적극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매장 개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장 개편은 9층 식당가를 두 개 층으로 나누는 복층화 공사를 통해 해외 명품 유치, 영패션 전문관 신설, 문화시설 확대, 지역 상생관 신설 등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을 쏟아붓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백화점 1층은 기존의 화장품 매장을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프라다, 페라가모, 미우미우, 브리틀링, 태그호이어 등 해외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치해 세련된 백화점으로 탈바꿈한다.

9층은 ‘영패션 전문관’이 들어선다.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가진 10~20대 고객층을 타겟으로 특화된 의류, 신발, 액세서리, IT매장 등을 신설한다.

10층에는 ‘지역 상생관’이 들어선다. 광



주 토종 빵집 ‘베비에르’의 성공적인 입점 사례를 통해 지역 맛집과의 상생 가능성을 확인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0층 식당가의 90%를 지역 맛집으로 채운다.

11층에는 롯데문화관이 재오픈한다. 광주은행 본점에 있던 문화센터와 갤러리 11층으로 이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콘텐츠를 갖춰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쇼핑과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윈스턴 쇼핑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부지 입찰 마감

삼성전자-현대차 2파전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후주요 땅인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 절차가 17일 마무리됐다. 업계의 관측대로 국내 제1·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나란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지 인수전은 양사의 2파전 구도로 압축된 양상이다.

한전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해 온 부지 입찰 절차를 이날 오후 4시 종료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온비드(온bid.co.kr)를 통해 진행됐다.

입찰 마감 상황은 일단 보안에 부쳐졌으며 18일 오전 10시 응찰자들의 제출 가격을 비교하는 ‘개찰’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입찰 결과가 발표된다. 개찰 절차에서는 응찰자가 과거 공공입찰에서 담합 등 위법 전력이 없는지, 보증금은 납부했는지 등을 따지는 적격성 판정도 함께 이뤄진다.



삼성전자 신제품 청소기 출시

삼성전자가 17일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 콤팩트’와 ‘모션싱크 코드리스’ 등 신제품 출시했다. 모션싱크 콤팩트는 크기와 무게를 3분의 1 줄여 이동·조작을 간편하게 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17일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 콤팩트’와 ‘모션싱크 코드리스’ 등 신제품 출시했다. 모션싱크 콤팩트는 크기와 무게를 3분의 1 줄여 이동·조작을 간편하게 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금호고속 예비입찰 국내외 사모펀드 4곳 참여

일부는 입찰가 5000억원 이상 제시

금호그룹 “모태기업 뺏기지 않을 것”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인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금호고속 인수전에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 4곳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호고속 매각 주관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지난주 금호고속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미국계 투자회사인 H&Q와 이류파트너스, 칼라일,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그룹 등 4곳의 국내외 PEF들이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인수 후보들은 입찰가격으로 5000억원 이상을 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메릴린치가 추가 입찰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어 입찰자는 늘어날 수 있다. 입찰 참가 소문이 돌았던 금호석유화학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예상과 달리 예비입찰이 ‘흥행’한 데는 금호고속이 매년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속을 태우고 있다. 최근 그룹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가 금호고속을 인수해도 실익이 없고, 금호 브랜드

사용 불가 등 여러 걸림돌이 있다”며 사실상 타 기업 및 펀드의 인수에 대해 저지 의사를 밝혔던 만큼, 다수 사모펀드의 입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인수 후보가 드러났지만 통보가 오거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수 의사를 밝힌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수 후보의 의중을 알기 힘들다”며 “결국 그룹의 모태기업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양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추신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500m

大山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이앤지 미화방수주